

# 광주 문화자본 투입 영화 잇단 흥행

亞문화산업조합 투자 '박수건달' '내가 살인범이다'… '남쪽으로 뛰어'도 기대

광주 문화자본이 투입된 영화들 이 잇따라 흥행 호조를 보이면서 문화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개봉한 '내가 살인범이다' (관객 수 280만명)로 1억5000~2억여원의 투자수익을 올린 데 이어 최근 개봉한 '박수건달'이 개봉 5일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어서다. 또 티켓 파워 있는 김윤석이 주연한 '남쪽으로 뛰어'에도 5억원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영화계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산업조합(이하 투

자조합)이 제작비 5억원을 투자한 영화 '박수건달'이 지난 9일 개봉, 13일 현재 누적관객 102만9714명을 기록했다.

투자조합은 문화부 38억4000만원, 광주시 35억원, 민자 117억원의 투자를 받아 지난해 9월 결성됐다. 자금은 용사는 주제임인 베스트먼트다.

투자조합은 총 제작비 72억원이 들어간 이 영화에 5억원을 투자했으며, 총제작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6.5%를 지분으로 갖고 있다. 현재 흥행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제외하고 1억5000만원~2억원 가량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문화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영화 '백수건달'이 대박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 5년간 비디오와 CD 판매 등의 수익도 예상된다"고

전망이다.

백수건달은 조폭 부두목 광호(박신양 분)가 건달과 무당이라는 '투집'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고미했다.

투자조합이 지난해 5억원을 투자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도 비교적 흥행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제외하고 1억5000만원~2억원 가량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문화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영화 '백수건달'이 대박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 5년간 비디오와 CD 판매 등의 수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산업조합은 지난 해 지역업체인 아이스크립트에 5억

원 등 25억원을 지원했고, 영화 '음치클리너' 등 4편에 제작비 22억원을 투자했다. /윤영기자 penfoot@

## 소병철·주철현 검찰총장 후보 천거

추천위, 고검장급 고위간부 전원 등 15명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검찰 내·외부 인사 15명 안팎이 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각종 단체와 개인에 의해 천거된 제청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4기와 15기인 현직 고검장급 고위간부 8명 전원을 비롯해 검사장급 간부 3~4명, 검찰 출신 변호사 3~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4기에서는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61·경남) 대검 차장과 채동욱(54·서울) 서울고검장, 노현균(56·경북) 법무연수원장, 김학의(57·서울) 대전고검장이 천거됐다.

15기 고검장급으로는 길태기(56·서울) 법무부 차관, 최교일(51·경북) 서울중앙지검장, 소병철(55·전남) 대구고검장, 김홍일(57·충남)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또 한명관(54·서울) 서울동부지검장, 이창세(51·대구) 법무부 출입국·외교정책본부장, 주철현(54·전남) 대검 강력부장 등도 후보군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로는 한 전총장과 동기인 연수원 13기의 차동민(54·경기) 전 서울고검장, 박용석(58·경북) 전 대검 차장 등이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현직 검사 1명과 변호사 1명 등 2명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법무부는 제청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 심사를 위해 이르면 이달 하순께 추천위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화 안되면 허가 못해"

환경부 방침… 구례·남원·산청·함양군, 독자신청 추진

환경부의 '단일화' 요구에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는 영·호남 4개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 설치를 굽히지 않아 사업 자체가 난항에 처해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경남·산청·함양군,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모두 부결하면서

서 지역을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4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들이 구례군청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뒤이어 해당 시·군의 케이블카 추진 부서 담당자들이 그동안 수차례 단일화를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서로

자기 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한

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각 시·군이 또 다시 독자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만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산청군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변경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구례군도 재신청을 위해 설치 구간

변경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보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함양군과 남원시 역시 공원계획 변경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4개 시·군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 당시 1곳으로 조정하고자 했지만, 이는 번화할 수 없다"고 단일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만약 시·군이 단일화하지 않고 각자 신청하면 되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이 상생할 방

법을 찾고 있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구례군은 지역을 단일화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운영권을 아예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설치되지 않은 3개 지역의 주민을 취업시키는 등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남원시와 함양군은 공원계획을 보완하고 나서 다른 시·군과 단일화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사업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지자체들이 선뜻 이런 방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 추진

시, 조감도 공개… 구체적 사업 계획 확정안돼

광주시가 시청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조감도) 설치를 추진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저수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청 내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했으면 한다"며 "서울광장 아래 스케이트장처럼 12월부터 2월까지 시청내 문화광장에 빙판장을 임시로 설치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12일 중학생 2명이 남구의 한 저수지의 얼음이 깨지면서 빠진 것과 관련, "행정의 기



본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도심 내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은 문제"라면서 "살얼음이 언 저수지의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순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

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강 시장의 발언 직후 스케이트장이 설치된 시청광장 조감도를 내놨으며, 구체적인 스케이트장 설치 계획도 수립중이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표면층 토양 유실 심각

표토면적 25%… ha당 연간 50t 이상 침식

전남지역 토양의 표면층이 심각하게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표토(表土) 침식 예비조사를 한 결과 전남과 강원, 경남 3개 권역에서 표토면적의 25% 안팎이 헤타르(ha)당 연평균 50t 이상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토는 지질의 지표면을 이루는 겉흙으로 식물에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자연자원이다. 30cm가 생생되려면 1000~1만년이 걸릴 정도로 재생속도가 매우 느린다. 예비조사는 경사도와, 식생, 토양의 특성 등의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식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원권은 25.5%, 전남권 25.0%, 경남권은 24.2%가 ha당 연간 50t 이상 표토가 유실됐다.

수계별로는 설진·영산강 수계가 24.5%, 한강 수계가 23.3%로 표토가 많이 침식되는 편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토의 30% 이상이 ha당 연평균 30t 이상 유실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토양침식 등급 중 최고인 '매우 심함' 등급에 해당했다.

환경부는 '표토보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표토 침식량이 ha당 연간 50t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현장 실측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마는 바닷물을 조금씩 넣어 송어가 적응을 하면, 나중에는 바다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과학원이 연구한 순치 기술에 따라 이렇게 2~3일 적응시키면 송어의 바다 양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민물에서 4kg 송어를 생산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다에서는 6개월이면 가능하다. 또 겨울철 마땅한 양식 어종이 없는 양식어가에게도 겨울 송어 양식은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차가운 계곡물에서 자라 강원도 평창과 경북 울진 등지에서 양식하던 송어가 전라도 바다에서 자라는 것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개발한 '순치 기술' 때문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한 교통, 광고효과최고!

임대층 1,2,5층 각 100평, 52평

권장임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 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무소 (빌딩상가전문 중개)

C.P. : 016-261-2305

TEL : 062-673-7120 / 070-7763-7120

## 울명철학

人間의 길 흥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 아래에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운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민수도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민수도)로 수십년을 묵을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개인지도 자체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혼용)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자곡리 95-2

(광주남성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8,000만원

##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br